

CIS 지역에서의 러시아와 미국의 군사안보 전략 비교

김보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목 차

- I. 서론
- II. 러시아와 미국의 CIS 지역 지전략적 중요성
 - 1. 러시아의 입장
 - 2. 미국의 입장
- III. 러시아와 미국의 대CIS 지역 군사 안보 전략
 - 1. 러시아의 대CIS 군사안보 전략
 - 2. 미국의 대CIS 군사안보 전략
 - 3. 미국과 러시아의 CIS 지역 군사 배치 현황
- IV. 결 론

I. 서론

1904년 매킨더(Halford Mackinder)의 논문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¹⁾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가 유라시아의 중심축으로, 이 지역 지배 국가가 유라시아, 더 나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CIS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²⁾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19세기, 러시아와 영국의 "거대게임(Great Game)"의 전장이었던 CIS 지역은 이제 러시아와 미국의 각축장이 되었다. 소연방 붕괴로 인한 힘의 공백을 틈타 미국은 이 지역의 석유 자원을 확보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군사진출 노력과 함께 러시아가 다시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과거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정치, 군사, 경제적인 상실 만회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³⁾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동서-남북의 수송 회랑이 되며 테러리스트들을 경계할 수 있다는 CIS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에서 서방세계의 관심, 특히 미국의 관심이 집중된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독점적 지배력은 이미 과거지사가 된 것이다.⁴⁾

대테러전쟁을 명목으로 중앙아시아국들과 코카서스국들에 주둔한 미군은 CIS국들의 독립만으로도 불안해하던 러시아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었다. 미군의 주둔은 주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는 그 국가의 내정 간섭으로 이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⁵⁾ 모든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한번 획득한 어떠한 기지도 쉽게 철수하지 않았다. 한 전쟁에서 획득된 기지들은 주로 거의 새로운 적을 향한, 앞으로

1) 영국왕립지리학회 발표.

2) 고재남,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부상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06, p.2.

3) 박주식, "카프카즈, 카스피 지역문제와 미국과 러시아의 대응", 평화연구, 2004, 제12권 2호, p. 155.

4) Igor Tomberg, "The Caspian: A New Stage In The Great Energy Game",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2006, No. 5(41), p.21.

5) Zdzislaw Lachowski, "Foreign Military Bases in Eurasia", 2007, SIPRI Policy Paper No. 18, p. 10.

의 전쟁을 위한 전방 배치로 여겨졌다. 미 상원 대외 관계위원회(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산하, 해외 안보 협약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ttee on Security Agreements and Commitments Abroad)가 발행한 1970년 12월 21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미국의 해외기지는 건설되면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갖는다. 본래의 임무가 사라지더라도 단지 시설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임무가 개발된다.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부 부처 - 국무성과 국방성 - 내에서 이러한 해외 시설들을 감축하거나 제거할 동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pp.19-20), 50-60년대에 미국은 소련에 의해 앞으로 획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기지로부터도 철수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전략적 거부(strategic denial)"라는 특별한 독트린을 발표한 바 있다.⁶⁾ 이러한 미국의 중앙아시아 군사 주둔은 러시아에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겠다. 비록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안보 영역이었더라도 미군의 이 지역 장기 주둔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상당히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⁷⁾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CIS 국가들이 러시아와 미국에 갖는 지전략적 중요성을 살펴보겠다. 다음으로는 러시아와 미국이 CIS국가들에 어떠한 군사안보 전략을 각각 세우고 있는가를 밝히면서 현재 CIS 지역의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기지 현황을 알아보겠다.

II. 러시아와 미국의 CIS 지역 지전략적 중요성

1. 러시아의 입장

모스크바 대공국 시기부터 1991년까지 러시아 제국의 역사적인 경계선 역할을 하던 CIS국가들은 러시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⁸⁾ 안보에 관한 러시아 외교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 국경의 안정화라는 점⁹⁾에서 이들 국가의 독립은 러시아 외교 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준 셈이다. 하지만 "1990년대 정치·외교·경제적 3중 전환(triple transition)을 동시에 진행시키면서 소위 '잃어버린 10년'으로 지칭될 정도로 극심한 정치·경제적 혼란과 취약한 외교·안보 역량 때문에 국제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던"¹⁰⁾ 러시아가 CIS 지역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말할 때는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였다. 1993년 1월 "러시아의 외교정책 개념"에서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를 주장하기보다는 "이 지역이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봉쇄선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러시아와 서구를 연결하는 하나의 교량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¹¹⁾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해체로 러시아의 군사력은 유럽에서 러시아 쪽으로 약 1,500km 물러나게 되면서¹²⁾ 유럽에서 고립될 것을 우려한 러시아의 대응인 것이다.

하지만 푸틴 정권 이후 반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신-제국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러시아가 볼 때,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서방 세력과 미국의 CIS 진출은 이 지역이 러시아와 서구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재고하게 한다. 특히나 CIS 지역과의 에너지 거래에 있어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에너

6) Harry Magdoff, John Bellamy Foster, Robert W. McChesney, Paul Sweezy, "U.S. Military Bases and Empire", 2002, Monthly Review, Vol.53. N.10.

7) Togzan Kassenova, "Central Asia: regional security and WMD proliferation threats", 2007, Disarmament Forum, p. 3.

8) Stephen Blank, "Russia and CIS: The Struggle for Primacy", US Army War College, 2007, p.1.

9) Cyril E. Black, "The Pattern of Russian Objectives", in Ivo J. Lederer, ed., *Russian Foreign Policy: Essays in Historical Perspectives*, 1962,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pp. 6.

10) 고재남, "러시아의 재부상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함의", 2007, 외교안보연구원, p. 1.

11) 문수연, "러시아와 동구: NATO의 동구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과 선택", 1995, 한국정치학회보, Vol. 29, No.4, p. 6.

12) 김진희, "러시아 연방의 대 CIS 군사협력과 발전과정", 2003, 국방대, p. 28.

지를 공급해주고 구소연방 시절 CIS 지역 군사기지에 사용료를 물면서 이들 지역에 아량을 베풀었다고 생각 하는 러시아가 CIS 지역에서 일어난 일련의 ‘색채혁명들’과 지역민들의 반러감정으로 이들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 러시아로써는 CIS 지역을 서구의 영향력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안보 과제로 여기게 된다.¹³⁾ 전 국방부 장관 세르게이 이바노프(Sergei Ivanov)는 2006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는 최근 보다 넓은 범위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데 확고한 입장을 가져왔다. 이는 특히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많은 도전들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국내 사안을 외국이 간섭하는 것 등이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몇몇 구소연방의 헌정질서가 공격당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국경선 불안정에 대비해야만 한다.¹⁴⁾

이는 러시아와 CIS 국가들의 내정에 외국이 개입하는 것을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러시아와 CIS 국가들의 안보는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¹⁵⁾ 구소련 시기 남쪽 국경을 위한 국방의 근거 시설물들은 타지키스탄,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CIS 국가들 내부에 설치되었는데 이러한 시설물들을 모두 재구성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 것이므로 러시아는 이들 국가들에 군사기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1993년 보리스 옐친의 UN 연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옐친은 러시아의 “구소연방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증인”으로써의 특별한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UN에 요구하는 ‘러시아판 먼로 독트린’을 내세운다.¹⁶⁾ CIS 지역에서 러시아가 우선권을 갖고, 이를 UN, 즉 서방세계와 주변 국가들이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¹⁷⁾

CIS 국가들에 러시아가 갖는 관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작용하고 있다. 첫째, 이들 지역에 약1천만명의 러시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자국민의 보호를 중요시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 내 이슬람 인구가 전체 러시아 인구의 19%에 이르는데, CIS 지역을 통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대한 위협이 자국내 이슬람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의 범죄율이 급상승하는데 CIS 지역이 마약과 무기 밀매의 통로가 되고 있어 이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이들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¹⁸⁾

이러한 상황에서 CIS 지역의 에너지는 러시아의 에너지안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너지 자원의 수출에서 얻어지는 재원이 CIS 국가들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부문의 협력은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 푸틴은 강대국 간 협조체제(러시아-중국-인도)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강화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이들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한다.¹⁹⁾ 특히 카스피해를 둘러싼 에너지 경쟁 및 오랜 역사적 인종 갈등의 해결은 러시아가 직면한 큰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카스피해의 에너지 사용 및 그 수출에 있어 러시아는 더 이상 독점적인 행보를 취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 지역의 에너지를 놓고 강대국들, 특히 미국과 국제 석유 메이저들이 벌이는 경쟁은 아제르바이잔의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나 터키와 아르메니아간의 인종적 반목과 맞물려 새로운 갈등

13) Moscow, RBSC Daily in Russian, February 22, 2005, FBISSOV, February 22, 2005; "Russia Slams U.S. 2006 Freedom Agenda, www.mosnews.com, December 31, 2005; Golts, "Russia At Risk of Collapsing, Putin Says," Associated Press, April 18, 2005, Lexis-Nexis에서 발췌; "Interview with Chief of the Presidential Staff Dmitri Medvedev," Ekspert Weekly, April 5, 2005, Lexis-Nexis에서 발췌; "Vladislav Surkov's Secret Speech : How Russia Should Fight International Conspiracy," www.mosnews.com, July 12, 2005; "Interview with Vladislav Surkov, Moscow, Ekho Moskvyy, FBISSOV, September 29, 2004.

14) Sergei Ivanov, "Russia Must Be Strong", 2006, Wall Street Journal.

<http://hanan-revue.blogspot.com/2006/01/russia-must-be-strong.html>

15) Stephen Blank, "Russia and CIS: The Struggle for Primacy", US Army War College, 2007, p.5.

16) Leshlie H. Gelb, "Foreign Affairs; Yeltsin as Monroe", 1993, The New York Times.

17) Vasily Milheev, "Applicability of SCO Experiences in Northeast Asia", 2004, Northeast Asian Cooperation & Lessons of SCO Experiences, p. 3.

18) 문수연, "러시아의 선택과 강대국 외교의 허실", 1999, 국제정치논집, p. 2.

19) 박상남, 강명구, "주요국의 대중양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2007,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50.

양상을 전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이 지역의 안보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2. 미국의 입장

1870년대부터 카스피해에 대한 지리학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이 이들 지역에 산재한 에너지 등 부존자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카스피해를 포함한 코카서스지역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당시 이 지역은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러시아, 영국 등 당시 주요 열강들의 세력각축의 장으로 크림리아 전쟁 등을 일으켰으며, 국제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세력경쟁을 소위 ‘거대게임(Great Game)’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소연방의 탄생과 유지로 이들 지역에서의 거대게임은 잠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²⁰⁾ 하지만 소련 해체 이후 미국은 군사안보와 에너지 자원 개방 및 수송 측면에서 CIS 지역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이 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면서 카스피에서의 러시아의 특별한 지위를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 전문가들은 1995년 기존의 중동 걸프 지역 방어선을 카스피 지역까지 확대하는 논의를 NATO 회의에서 전개시키고, 체니 부통령은 카스피해 지역만큼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닌 곳은 없다고 언급한다. 미국에게 있어 CIS 지역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국내적 문제와 NATO의 방어 전략 확대라는 세계 전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다.²¹⁾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으나 미국은 CIS 지역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못했다.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체주의적 정치체제 및 정부부패, 중앙아시아 주변 강국들의 적대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을 뿐이다.” 미국이 이들 국가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못했던 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먼저, 이들 국가 중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약한 경제력에 기인하여 미국의 원조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토에 미국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다른 문제는 이들 지역에 군사 주둔은 막대한 비용이 들고 미군이 이슬람의 공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이었다.²²⁾ 하지만 9.11테러 이후 미국은 이 지역에 높은 관심을 두고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기지를 마련한다.²³⁾ 브레진스키(Z. Brzezinski)는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을 ‘미국은 현재 유라시아의 조정자이고, 미국의 이익에 위배되거나 미국의 참여가 없이 유라시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설명할 정도로 CIS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고, 양국은 1994년에 ‘민주적 동반자관계에 대한 선언(The Charter on Democratic Partnership)’을 발표했으며 1997년에는 ‘경제적 동반자관계에 대한 조약(The Charter on Economic Partnership)’도 체결했다. 이 조약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의 특별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카자흐스탄 옹서버는 미국에 희망을 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대체로 자국에 심각한 물질적 그리고 인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대대적인 전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미국은 미래에 카자흐스탄을 구하기 위하여 미국인을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며, 되도록이면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경제적 방법 또는 정치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III. 러시아와 미국의 대CIS 지역 군사 안보 전략

1. 러시아의 대CIS 군사안보 전략

20) 고재남, “최근 코카서스 정세와 러시아의 대응”, 2004, 카프카즈 저널, p. 29.

21) 박주식, “카프카즈, 카스피 지역문제와 미국과 러시아의 대응”, 2002, 평화연구, 제12권 2호, p. 172-173.

22) 이호령,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분석”, 2002, 평화연구, 제11권 2호, p. 2.

23) Stephen Blank, "US strategic priorities shifting in central asia", 2004, Eurasia Insight.

소연방 붕괴 이후 힘의 공백지로 노출되었던 CIS 지역에 러시아가 다시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했을 때는 이미 서구 세력, 특히 미국의 개입이 많이 진전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전외무장관 안드레이 코지레프(Andrei Kozyrev)는 1994년 동안 러시아의 대외 정책 아젠다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소연방 지역에 나타나는 불안정 및 군사 분쟁에 대해 새로운 위협의 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거친 방식으로’ 이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Russian Pacific Fleet)의 확장²⁴⁾은 ‘세상에 러시아가 약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²⁵⁾ 러시아군력을 강조한 시기는 러시아의 해군력이 명백히 쇠퇴한 때였다. 하지만 푸틴 총리는 2000년 코카서스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을 확고히 하면서 체첸 지역의 러시아군 주둔 기지를 방문한다.²⁶⁾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는 대외적으로 러시아 인근 국가(Near abroad)들에 대한 서방세계의 출현을 경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소연방 해체 이후 약해지고 혼란에 빠진 자국민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러시아의 경제위기는 러시아군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사기를 저하한다. 이러한 러시아군의 전력 약화는 1994-96년의 체첸 전쟁에서 러시아 정부군의 패배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²⁷⁾ 러시아 외무장관 예브게니 프리마코프(Yevgenii Primakove)는 알렉산더 고르차코프(Alexander Gorchakov)²⁸⁾ 탄생 200주년을 맞은 연설에서 잃어버린 소연방의 힘을 고르차코프를 모델로 삼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르차코프의 대외 정책에서 5가지 중요한 점은 (1) 패배로 인해 약해졌을 때라도, 러시아는 대외정책에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 (2)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한 지역에 국한되거나 단일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세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 (3) 러시아는 세계를 이끌어가기에 ‘충분한 힘’을 항상 보유해야 한다는 점, (4) 힘이 작은 국가들이 패권 국가들에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이용하여 러시아는 그 영향력을 재건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점, (5) ‘변하기 쉬운’ 협력관계나 영구적인 협력관계를 가리기에 앞서 모든 국가들과 건설적인 협력자 관계를 취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²⁹⁾. 이러한 프리마코프의 현실주의 이론을 푸틴이 계승하여, 21세기 러시아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그루지야의 CIS 영입 노력이나 러시아군의 CIS 지역 국경선 전진 배치 등은 러시아의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지위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³⁰⁾

러시아가 CIS 지역을 일반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지역 국가들에 선택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면도 있다. 1993년 10월, 러시아군대는 “평화유지군(peacekeeping forces)”으로 재조직된다. 여기에는 우즈베키스탄과 기르기즈스탄의 소분견대부터 카자흐스탄의 군대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러시아 단독의 모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1998년 8월 12일 탈레반 밀리타리아 군대가 우즈베키스탄 국경선에서부터 아미다리아(Amu Daria) 강둑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하이라탄(Hairatan)을 점령하자, 타지키스탄 대통령 이마마리 라흐모노프(Imamali Rahmonov)는 CIS 국가들에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따라 안보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취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³¹⁾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방공사령부에서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지역의 방공망을 맡게 하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알마티를 중심으로 방공망을 건설하여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즈 국가들을 포함하는 방어체제를 형성하였다. 또 1997년 여름 아르메니아와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하여 카프카즈 지역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24) Nirav Patel, Vikram Singh, “Washington Should Pay Attention to Russian Moves in the Asia-Pacific”, 2008, World Politics Review Exclusive.
<http://www.worldpoliticsreview.com/article.aspx?id=2286>

25) Nozar Alaolmolki, "Life After the Soviet Union", 2001,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 152.

26) Washington Times, 1994년 3월 15일자, REF/RL, 1994년 3월 15일자, New York Times, 2000년 1월 2일자.

27) 고재남, “러시아의 재부상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함의”, 2007, 외교안보연구원, p. 5.

28) 알렉산더 고르차코프(Alexander Gorchakov)는 크림리아 전쟁(1853-56)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 재건을 담당하였다.

29) Paul Goble, “Primakov's 19th Century Model”, 1998, RFE/RL newslines, Vol. 2, No. 147 Part I, 3.

30) Nozar Alaolmolki, "Life After the Soviet Union", 2001,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 160.

31) 위의 책, p. 156.

수호하려는 의지를 표명한다.³²⁾

CIS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사무총장 니콜라이 보르디유자(Nikolai Bordyuzha)는 중앙아시아에의 국제적 군사력 형성 계획을 언급하면서 ‘어떠한 위협이든 몰아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11월 9일,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제프는 국가 두마에 5,000명으로 이루어진 강한 군대에 대한 협의안을 제출했다. 보르디유자는 이 군대는 협의안의 비준이 이루어지는 즉시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11일, 그는 CSTO의 책임 지역에서의 안보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였다. 이는 러시아가 CIS와 CSTO의 우산 하에서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 카자흐스탄 국방장관인 알리베크 카시모프(Alibek Kasymov)는 러시아는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CIS 국가들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동시에 이러한 군사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를 서방세계에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소련방이 붕괴된 처음 몇 년간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그 위치를 고수하였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마리 지역에 러시아는 거대 군사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러시아의 국경선은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따라 지킬 수 있었다. 러시아는 실제 타지키스탄의 대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봉쇄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이슬람원리주의, 마약, 무기 등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³³⁾

타지키스탄의 내전 동안 몇몇 러시아 군대가 타지키스탄에 주둔하였는데, 최정예 낙하산 부대가 CIS 평화유지군을 지원하기 위해 타지키스탄에 배치되었다. 이때 이후로 러시아는 여전히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에 기지를 갖고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인 블라디미르 무킨(Vladimir Mukhin)은 러시아가 이 지역에 군사 주둔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믿는다.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우즈베키스탄의 카나바드 기지는 초기 인도까지 닿을 수 있는 폭탄기가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이곳은 공군 기지로써 ‘도약대’ 역할을 하기에 좋은 곳이다. 대규모의 인프라구조를 갖고 있지 못한 타지키스탄이 문제인데 이곳에는 무엇이든 실용적으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러시아의 입장이다.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그들의 군사기지를 위한 “다름광장³⁴⁾”으로 여기며 이곳에서 기지를 찾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³⁵⁾ 2005년 미군이 떠난 우즈베키스탄의 공군기지를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다³⁶⁾는데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대단히 민감하였다. 2006년 CSTO의 확장 가능성 및 CIS 지역에서의 러시아 군사 동맹, 인도의 참석 여부에 대한 논의³⁷⁾는 이 지역에서 중국 또한 견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슬람 원리주의자 세력과 중국에 대한 위협을 함께 느끼는 러시아와 인도의 전략적 화합은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화합 모드에서 러시아는 인도가 타지키스탄의 아이니(Ayni)에 새로운 공군기지를 획득한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³⁸⁾, 중앙아시아의 외국 기지 주둔을 반대하는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02년 구축된 카스피해 전단(Caspian Flotilla)은 CIS 전 지역을 ‘안보 우산’ 하에서 포섭하겠다는 의도를 지닌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카스피해 전단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에너지 플랫폼 방어 임무를 맡을 것이라는 것이다.³⁹⁾ 이러한 경향은 러시아에 있어서 에너지와 전략적 문제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⁴⁰⁾

32) 문수언, “러시아의 선택과 강대국 외교의 허실”, 1999, 국제정치논집, p. 10.

33) 고재남, “러시아의 대CIS 평화유지활동”, 1996, 슬라브학보. 제11권 2호, p. 192.

34) 케벡에서 시타델이 건설되기 전에 프랑스군의 훈련과 행사장으로 쓰였던 구시가지의 중심광장.

35) Stephen Blank, "Russia and CIS: The Struggle for Primacy", US Army War College, 2007, p. 20.

36) Vladimir Mukhin, "Poslednaya Nabrosok na Iuge," 2005, Nezavisimaya Gazeta; "Spokesman Says China to Consider Sending Troops to Kyrgyzstan," 2005, Ta Kung Pao Website., 발췌 Lexis-Nexis

37) Ilyas Sarsembaev, "Russia: No Strategic Partnership With China in View," 2006, China Perspectives, NO.65, p. 30.

38) Rahul Bedi, "Indian Base in Tajikistan 'Quietly Operational,'" 2002, Irish Times.

39) Blagov, "Russia Says 'Nyet' to Military in the Caspian"

최근, 폴란드와 체코에 미사일 방어 체제(MD) 구축을 계획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NATO와 미국의 의도는 러시아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다. MD 구축 계획은 냉전 시대의 재현으로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나 1980년대 유럽에의 미핵미사일 배치와 비슷하게 보인다.⁴¹⁾ 러시아 스페이스군(Space Troops) 장군 블라디미르 포포브킨은 “미군 기지는 러시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라고 말하면서 새롭게 배치된 레이더가 중앙아시아에 배치된 러시아의 전략적 핵미사일과 북해함대를 감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란이나 북한의 로켓이 폴란드나 체코까지 날아갈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러시아는 미국이 MD를 계속 추진할 경우 러시아는 CFE(유럽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를 탈퇴하고 INF(중거리핵미사일 감축협정) 무효화하겠다는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NATO 및 미국의 러시아 안보 위협은 NATO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게 하였다.⁴²⁾ 2006년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흑해함대에 영구 주둔권을 준다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 주겠다는 불길한 발언을 한다. 이유는 우크라이나는 1992년 타슈켄트 조약과 1994년 우크라이나-미국-러시아 3국 협정에서 이미 안보를 보장 받았기 때문이다.⁴³⁾ 그루지야의 경우, 2003년 그루지야의 장미혁명 이후 러시아는 그루지야가 서방국가로 편입되는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서방국가들이 코소보의 독립을 승인하자, 러시아는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아의 분리독립을 승인하지 않는 서방국가들의 이중잣대를 일관되게 비난해왔다. 특히 러시아는 2008년 2월에 압하지아의 자치권을 '법적으로' 박탈하려던 그루지야에게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며 전쟁위협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08년 8월 그루지야의 선제공격은 그동안 베풀고 있던 러시아에게 기회를 준 셈이다. 전쟁은 개전 5일 만에 막을 내리면서 러시아는 그루지야의 반발 속에 8월26일 두 자치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했고 이들 자치공화국과 외교관계까지 수립했다. 국가 간 전쟁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처음이었기에 전 세계가 전쟁 결과와 이후의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려는 러시아와 그루지야의 동맹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우려한 EU 간 싸움으로 번지면서 `신(新)냉전' 시대가 도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러시아가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아의 분리독립 승인을 위해 매우 강경한 대응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CIS 국가들에 NATO 및 미국의 영향력이 깊이 침투하는 것에 대한 러시아의 응징의 일례를 볼 수 있었다. 이번 그루지야 사태는 친미노선의 주변 CIS 국가들에 대한 경고인 듯하다.

2. 미국의 대CIS 군사안보 전략

미국은 CIS 지역에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실제적인 주권 행사국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는 앞으로 다시 부상할 러시아를 견제하고, 과거 러시아가 이들 지역을 국경지대 역할로 이용한 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항하는 완충지역으로 이들 지역을 탈바꿈하려는 전략적 관심을 보였다. 또한 불안정한 중동 석유의 보조적인 공급지로서 CIS 지역을 서방 시장에 결속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를 갖고 미국은 이들 CIS 국가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하였다.

9.11 테러 이전에는 CIS 지역의 몇몇 에너지 자원에 미국의 정책은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은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전략을 재조정하는 계기가 된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한 캠페인을 건설하기 위해, 미국은 우즈베키스탄 카나바드에, 키르기즈스탄 마나스/간시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공군기지를 요청하고 이를 확보한다. 각 국가들은 중부사령부(CENTCOM)의 읍저버 지위를

40) Stephen Blank, "Russia and CIS: The Struggle for Primacy", US Army War College, 2007, p.22.

41) Pavel Felgenhauer, "U.S. Proposal To Base Missile Defense Systems In Poland, Czech Republic, Raises Alarm In Moscow", 2007, Eurasia Daily Monitor Vol. 4, no.17.

42) 고재남, "러시아의 재부상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함의", 2007, 외교안보연구원, p. 8.

43) Vladimir Socor, "Putin Offers Ukraine "Protection" for Extending Russian Black Sea Fleet's Presence," 2006, Eurasia Daily Monitor.

얻는다. 타지키스탄은 두산베에 비행 허가권과 비상 착륙권을 인정한다.⁴⁴⁾

이러한 기지들의 건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힘을 아끼면서 빠른 보호모드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전방 부대 생성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지들이 공식적으로 미국과 주둔국가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예를 들면, 상당한 자금이 이들 공군기지들의 확대와 재단장에 할당되었다. 사실, 2004년 자유 지원법(Freedom Support Act)에 의해 미국은 이들 ‘파트너’ 국가들에 157,000,000 달러를 지원한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의 총 지원금이 276,000,000 달러라는 사실에 비교해 보았을 때 이는 어마어마한 수치이다.⁴⁵⁾

반테러리즘을 위시한 미국과 러시아의 동맹의 전망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긴 하였다. 푸틴은 스스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도자들에게 미국에게 공군기지를 내주도록 압력을 가하고,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리스트 소탕을 지원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였다. 러시아 정책의 이러한 “커다란 선회(Great Turn)”는 러시아가 미국을 막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실용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다.⁴⁶⁾

2005년 6월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지도자들과 만나 정치적 긴장 국면 속에서 이 지역에 미군 주둔을 논의한다. 미국은 확보된 기지를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며 주둔의 영속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번 이 지역에 주둔한 미군이 테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이다. 대테러전과 아프간 내전의 종결 이후 테러 근거지와 그 지원 세력 약화 이후에도 미국은 칸다하르의 1,000명의 해병대를 101 공수사단 병력으로 대체하고 중앙아시아에 계속 군사를 주둔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과거 아프간 전에서 소련의 근거지였던 바그람 공군기지도 인수하는 등 옛 소련의 영역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미국은 그루지야 등에 군사협력 강화 및 군사 원조를 약속하며 그루지야, 몰도바 등으로 하여금 양국 국경지대에 배치되어 있는 러시아군을 2001년 7월 1일까지 그루지야에서 철군하도록 러시아에 요구하도록 하며 2002년 7월 1일까지는 몰도바에 이를 요구한다. 하지만 지나친 정책으로 러시아를 고립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에서 부분적으로는 러시아와 협력하는 चे스че도 취하고 있다. 2002년 부시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석유위기가 발생하면 러시아는 미국에 부족한 석유를 지원해주고 미국은 러시아의 자원개발을 지원해 준다는 ‘에너지 안보협정’을 체결한다. 세계평화위원회(WPC) 사무총장 이라클리스 트사프다리디스(Iraklis Tsavdaridi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군 기지의 건설을 단순히 군사적인 목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미국은 항상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적·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군사력을 이용해 왔다. 예를 들면, 미국과 그 협력국들은 언젠가 미국을 위한 안보 통로를 구축하여, 카스피해와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통하여 아리비아 해안으로 끌어내는 것을 열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기지 건설은 이러한 열망을 현실화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⁴⁷⁾

이러한 행보는 러시아의 심기를 무척 불편하게 하였으며, 러시아를 위시한 상하이협력기구(SCO)⁴⁸⁾는 2005년 7월 5일, 이 지역의 미군 철군 날짜에 시한을 정하기를 요청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그 요구를 거부하면서 미군의 이 지역의 군사기지는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양자 협의 사항이지 SCO가 개

44) Jason M. K. Lyall, "Great Game: Russian and the Emerging Security Dilemma in Central Asia", 2004, Princeton University, p. 19.

45) <http://usinfo.state.gov/ei/Archive/2004/Jan/07-279022.html>.
State Department MEMorandum.

46) John O'Loughlin, Gearoid O Tuathail, Vladimir Kolossov, "A Risky Westward Turn? Putin's 9-11 Script and Ordinary Russians", 2004, Europe-Asia Studies, Vol. 56, No. 1, pp. 3-34; J. L. Black, "Vladimir Putin and the new world order: looking east, looking west?", 2004, Oxford: Rowman & Littlefield.

47) <http://stopusa.be/campaigns/texte.php?section=FABN&langue=3&id=24157>

48) 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다.

입할 일이 아니라고 나선다.⁴⁹⁾

미국의 CIS 지역 장기 전략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존 쉐버라인(John Schoeberlein⁵⁰⁾)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이 완료되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의 완전 철군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이 미군기지 폐쇄를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미국 스스로 철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프레데릭 스타(S. Frederick Starr⁵¹⁾)는 미국이 이 지역에 더욱 깊숙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비군사적 지원은 연간 2조 6,700만 달러에 달하므로, 미국에 의한 더 많은 전략적 일관성과 이해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우즈베키스탄은 2001년 미군 기지 주둔을 허용함으로써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연간 150,000,000 달러의 군사 원조, 훈련, 장비를 제공 받는 장기 동맹을 맺었다. 하나바드 기지를 임대한 미국은 카리모프 정권의 인권탄압에 침묵해 왔으나 2005년 발생한 안디잔 학살사건으로 미국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자 미군 주둔 허용에 따른 정권보장 효과가 무의미해졌다.⁵²⁾ 우즈베키스탄이 이를 비난하자,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즈베키스탄이 진상조사를 할 때까지 11,000,000 달러의 원조금을 보류하게 된다. 이에 우즈베키스탄은 야간비행 금지와 C-17 수송기 착륙에 제한을 두는 등의 미군 기지 사용에 제약을 가한다. 라이스 장관은 이에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순방한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폐쇄될 예정인 우즈베키스탄 미군 기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른 기지 건설을 추진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⁵³⁾ 하지만 2008년 8월 우즈베키스탄이 6개월 내 미군 철군을 요구하자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방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에 유리한 기지 임대 조건을 제시하는 등 우즈베키스탄 달래기에 나섰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미군 기지는 연간 키르기스스탄 경제에 50,000,000 달러의 기여를 하고 있다. 게다가 키르기스스탄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금을 연간 10,000,000 달러를 받고 있다. 순전히 미국으로부터 받는 재정지원 때문에 미군주둔을 허용한 키르기스스탄 또한 2008년 12월 18일 러시아군의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바키예프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 조치는 더 이상 없으므로 마나스 기지 또한 폐쇄할 때라고 밝히고 있다.⁵⁴⁾

아프가니스탄과 800마일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은 미국의 공해 사용권리를 인정하고 타지키스탄 비행장에서 연료 충전의 특권을 주고 있다. 미국은 타지키스탄 정부에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의 리안드즈강(Pyandzh River)을 잇는 다리 건설을 위한 재정을 지원했다⁵⁵⁾.

이러한 최근 동향에서 앞으로 대중아시아 정책에서 미국의 입장이 기존보다 불리해졌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다.

3. 미국과 러시아의 CIS 지역 군사 배치 현황

다음은 러시아의 CIS 국가 군사 주둔 및 시설 현황이다.

49) Lionel Beehner, "U.S. Military Bases in Central Asia", 2005, Eurasianet.
 50) 하버드대학 중앙아시아 전문가, 저서로는 "Historical Atlas of Central Eurasia" (editor), Harvard University Press, forthcoming 2009.; "Talas's Central Asian Cultural Contexts," in Kyrgyzstan: A Photoethnography of Talas, pp. 19-35. Munich: Hirmer Verlag, 2007 등이 있다.
 51) 존스홉킨스 대학의 폴 H. 니체 국제학교 중앙아시아-코카서스 연구원 원장, 저서로는 "Russia's Ominous Afghan Gambit", Wall Street Journal Europe, 11 December 2001.; "America's Three Afghan Challenges", Christian Science Monitor, 23 November 2001 등이 있다.
 52) Oxford Analutica, RFE/RL Central Asia Report 8/3.
 53) <http://www.cnn.com/2005/WORLD/asiapcf/10/11/rice.asia.visit/index.html>
 54) <http://www.allheadlinenews.com/articles/7013456554>
 55) "U.S. Funds Construction Of Bridge Between Tajikistan And Afghanistan", Central Asia Caucasus Analyst, 2003년 6월 16일판, p. 16.

표156).

주둔국	군사활동 유형
아제르바이잔	가발라 레이더 기지, 2012년까지 운영, 공간군 (Space Forces ⁵⁷) 주둔, 제37 장거리 군용기지
아르메니아	에레비니 제426 군용기단 집리 제102 군사기지
벨라루스	바라노비치 공간군 주둔, 제37 장거리 군용기지, 2020년까지 운용 빌레이카 제43 해군 통신 교점지
그루지아	아칼카라키 제62 군사기지(2004년 철군) 바투미 제12 군사기지 (2005년 철군) 압하지아-남오세티아 평화유지군
카자흐스탄	사리-샤간 조기경보레이더 시스템 기지, 공간군 주둔
키르기즈스탄	칸트 CSTO 긴급배치군(Collective Rapid Deployment Force), 제5 공군
몰도바	트란스니스트라 CIS 평화 유지군
타지키스탄	니렉 7680 부대, 공간군 주둔, 제37 장거리 군용기지 듀산베 제201 군사기지 아이니 공군기지 인도와 연계 사용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 흑해전단 해군 기지

러시아군이 주둔한 나라는 벨로루시와 타지키스탄을 비롯한 9개국이다. 이들 국가에 설치된 러시아 군사 기지는 25곳에 이르지만 순수 군사작전용 기지는 크게 줄었다. 그루지야 서쪽 바투미에 주둔 중인 러시아 기계화부대는 1995년 그루지야와 러시아의 집단안보조약에 따라 2020년까지 기지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그루지야는 2001년 기지 사용 기간을 줄이자며 러시아에 철군을 요구했다. 러시아 정부가 2003년 친(親)서방 ‘장미혁명’이 일어난 그루지야에 등을 돌리면서 이 부대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러시아는 특히 그루지야 안의 민족 분리주의자 편을 들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러시아군은 그루지야 내 친러 소수민족 지역인 압하지야와 남(南)오세티야의 분쟁에 개입했다가 지금까지 1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러시아 주둔군에 대한 냉대는 아제르바이잔과 몰도바에서도 일어났다. 이들 국가는 최근 러시아와 군사 동맹 관계를 끊었다. 이 지역에선 정권 교체가 러시아군의 운명을 좌우하는 변수가 됐다.

소련 시절 미사일 조기경보를 위해 설치된 아제르바이잔 가발라 레이더기지는 정보분석센터로 바뀌었다.

몰도바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은 정부 간 갈등에 따라 명맥만 남았다. 몰도바 정부는 러시아군이 드네스트르강 동쪽의 트란스드네스트르 지역 분쟁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완전 철군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러시아군은

56) Zdzislaw Lachowski, "Foreign Military Bases in Eurasia", 2007, SIPRI Policy Paper No. 18, p. 46; Stephen Blank, "Russia and CIS: The Struggle for Primacy", US Army War College, 2007, p.21;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Russian_military_bases

57) 공간군(The Space Forces)은 러시아군의 일부로써 군사 활동이 벌어지는 지역에서의 러시아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반-미사일 방어를 담당한다.

이 지역 안의 친러시아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버티고 있으나 인력과 장비는 대폭 줄었다.

소련 시절 첨단무기 실험 장소였던 카자흐스탄 다목적 기지 사용료는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에 진 빚을 갚는데 쓰였다. 이 기지 가동률은 1990년대의 5~10%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주선 발사기지로 유명한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기지는 러시아가 매년 1억1500만 달러의 사용료를 물면서도 운용 주체를 우주군에서 민간 기관으로 바꿨다. 타지키스탄의 러시아군도 기지 사용 대가로 2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현지 민간인을 기지에 고용하기로 약속했다. 코메르산트는 “러시아 주둔군이 당초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면서 처치 곤란한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미국의 CIS 국가 군사 주둔 및 시설 현황이다.

표258).

주둔국	군사활동 유형
우즈베키스탄	하나바드 공군기지 (2005년 철군) 테르메즈 공군기지 (현재 주둔국 철군 요청 상태)
키르기스스탄	마나스 공군기지 (현재 주둔국 철군 요청 상태)
타지키스탄	듀산베 공군기지 파르크호르 공군기지
카자흐스탄	알마티 기지 ⁵⁹⁾ (사용조약 비준 상태)
아프가니스탄 ⁶⁰⁾	바그람 기지

러시아와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이뤄진 상하이협력기구는 2005년 정상회의에서 주둔 미군의 조기 철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후 미군은 우즈베크 정부의 요구로 현지에선 철수했으나 막대한 기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경우 미군 기지를 존속시키고 있다.

IV. 결론

미국과 러시아는 CIS 지역의 군사 주둔으로 대테러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지에서 같은 입장이다. 이들 지역에서 군사 기지를 획득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모두 기지를 제공해 주는 국가에 경제적인 보상을 보장한다. 러시아는 구소연방 시절 잔존 시설물을 임대하는 방식과 무기 판매를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지 사용 대가로 연간 일정한 금액을 영토제공국에게 주고 있

58) Zdzislaw Lachowski, "Foreign Military Bases in Eurasia", 2007, SIPRI Policy Paper No. 18, p. 9;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2030161>.

59) 카자흐스탄 상원은 2008년 12월 1일 카자흐스탄 측이 2002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국 정부와 체결했던 알마티 미군 기지 사용 조약을 정식 비준했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보도했다. 알마티 미군기지 사용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미 공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공군이 카자흐스탄에 들어가 중앙아시아 대(對)테러전과 아프간 작전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카자흐스탄 의회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노선을 걷던 정부의 눈치를 보며 미군기지 이용 조약 비준을 6년간 미뤄 왔으나 버락 오바마 당선인의 미 대통령 취임 전에 비준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러시아 안보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이 아프간 전쟁 수행을 공약한 오바마 행정부를 위해 기지를 개방하는 대신 금융 지원 등 경제적 실리를 얻기 위해 미군 주둔을 수용했다”고 분석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2030161>.

60) CIS 국가에 속하지는 않으나, 미군의 CIS 주둔 이유가 되는 나라이므로 기지를 표시한다.

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대테러 전쟁 명분 이면을 살펴보자. 미국은 다시 힘을 키우고 있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이들 지역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 이는 반미 국가들에 NATO 가입을 유도하고 에너지 개발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유일한 권력이 되어 다시금 잃었던 힘을 되찾아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에 자국의 입지를 굳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NATO와 대치되는 CSTO를 구축하고 NATO, 즉 서방세계의 이 지역 진입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 여러 차례 반미 국가들에 러시아에 비협조시의 안보상 위협을 하였으며, 이는 지난 8월 그루지야 사태가 본보기가 된 셈이다. 당분간 CIS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힘의 군사안보정책은 유지될 것이다. 이들 지역에 러시아군 이외의 외국군 주둔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기존 미군에게 영토를 내주었던 국가들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주둔 기지를 모두 철수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는 CIS 국가들이 그리 쉽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불안정한 정치체제와 도입단계의 시장경제와 민족 분쟁,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세력다툼으로 CIS 지역의 정세는 여전히 불안하다. 거기에 지금 세계는 금융위기를 겪고 있으며 미국은 새로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들 지역의 군사안보전략이 어떻게 변해 갈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한 오랜 시간의 분쟁이 있을 것임은 틀림없다.

참고문헌

- 고재남,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부상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06.
- 박수식, “카프카즈, 카스피 지역문제와 미국과 러시아의 대응”, 평화연구, 2004, 제12권 2호.
- 고재남, “러시아의 재부상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함의”, 2007, 외교안보연구원.
- 문수연, 러시아와 동구: NATO의 동구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과 선택“, 1995, 한국정치학회보, Vol. 29, No.4.
- 김진희, “러시아 연방의 대 CIS 군사협력과 발전과정”, 2003, 국방대.
- 문수연, “러시아의 선택과 강대국 외교의 허실”, 1999, 국제정치논집.
- 박상남, 강명구, “주요국의 대중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2007,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고재남, “최근 코카서스 정세와 러시아의 대응”, 2004, 카프카즈 저널.
- 이호령,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분석”, 2002, 평화연구, 제11권 2호.
- 고재남, “러시아의 대CIS 평화유지활동”, 1996, 슬라브학보. 제11권 2호.
- Igor Tomberg, "The Caspian: A New Stage In The Great Energy Game",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2006, No. 5(41).
- Zdzislaw Lachowski, "Foreign Military Bases in Eurasia", 2007, SIPRI Policy Paper No. 18.
- Harry Magdoff, John Bellamy Foster, Robert W. McChesney, Paul Sweezy, " U.S. Military Bases and Empire", 2002, Monthly Review, Vol.53. n.10.
- Togzan Kassenova, "Central Asia: regional security and WMD proliferation threats", 2007, Disarmament Forum.
- Stephen Blank, "Russia and CIS: The Struggle for Primacy", US Army War College, 2007.
- Cyril E. Black, "The Pattern of Russian Objectives", in Ivo J. Lederer, ed., Russian Foreign Policy: Essays in Historical Perspectives, 1962,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 Sergei Ivanv, "Russia Must Be Strong", 2006, Wall Street Journal.
- Stephen Blank, "Russia and CIS: The Struggle for Primacy", US Army War College, 2007.

- Leshlie H. Gelb, "Foreign Affairs; Yeltsin as Monroe", 1993, The New York Times.
- Vasily Milheev, "Applicability of SCO Experiences in Northeast Asia", 2004, Northeast Asian Cooperation & Lessons of SCO Experiences.
- Stephen Blank, "US strategic priorities shifting in central asia", 2004, Eurasia Insight.
- Nirav Patel, Vikram Singh, "Washington Should Pay Attention to Russian Moves in the Asia-Pacific", 2008, World Politics Review Exclusive.
- Nozar Alaolmolki, "Life After the Soviet Union", 2001,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Paul Goble, "Primakov's 19th Century Model", 1998, RFE/RL newslines, Vol. 2, No. 147 Part I, 3.
- Ilyas Sarsembaev, "Russia: No Strategic Partnership With China in View," 2006, China Perspectives, No.65.
- Rahul Bedi, "Indian Base in Tajikistan 'Quietly Operational'," 2002, Irish Times.
- Pavel Felgenhauer, "U.S. Proposal To Base Missile Defense Systems In Poland, Czech Republic, Raises Alarm In Moscow", 2007, Eurasia Daily Monitor Vol. 4, no.17.
- Vladimir Socor, "Putin Offers Ukraine "Protection" for Extending Russian Black Sea Fleet's Presence," 2006, Eurasia Daily Monitor.
- Jason M. K. Lyall, "Great Game: Russian and the Emerging Security Dilemma in Central Asia", 2004, Princeton University.
- John O'Loughlin, Gearoid O Tuathail, Vladimir Kolossov, "A Risky Westward Turn? Putin's 9-11 Script and Ordinary Russians", 2004, Europe-Asia Studies.
- Lionel Beehner, "U.S. Military Bases in Central Asia", 2005, Eurasianet.
- Oxford Analytica, RFE/RL Central Asia Report 8/3.
- "U.S. Funds Construction Of Bridge Between Tajikistan And Afghanistan", Central Asia Caucasus Analyst, 2003.
- Zdzislaw Lachowski, "Foreign Military Bases in Eurasia", 2007, SIPRI Policy Paper No. 18.